

2025. 3. 18.(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5년 3월 17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 부서: 민생노동국 소상공인정책과

소상공인정책과장 한정훈 02-2133-5530

소상공인정책팀장 윤선희 02-2133-5532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부

신용보증부장 주성원 02-2174-5211

보증기획팀장 이재현 02-2174-5248

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 3쪽

※ 추후 제공

관련 누리집 www.seoulshinbo.co.kr

"소액긴급비상 자금 필요할 때" 서울시, 저신용 자영업자 대상 '안심통장' 지원

- 저신용 자영업자 2만 명 지원 안심통장 출사... 서울시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 일환
- 간편한 모바일앱으로 비대면 신청, 영업일 1일 이내 신속 승인, 자유로운 입·출금
- 서울신용보증재단·카카오뱅크 모바일앱에서 27일(목)부터 신청... 자금 소진 시까지
- 17일(월) 서울시-카카오뱅크-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시 안심통장 업무협약'

서울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갑작스러운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소액이 급하게 필요했다. 은행 대출을 알아봤지만, 최근 카페를 폐업하고 다시 개업하는 과정에서 신용등급이 떨어져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서울시가 지원하는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안심통장을 알게 됐고 필요한 자금을 즉시 인출해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

- 생계형 자영업자 대상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안심통장' 사업이 오는 27일(목)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이 힘든 저신용 자영업자들이 불법대부업 시장에 내몰려 이중·삼중고를 겪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 ‘안심통장’ 사업은 저신용·생계형 자영업자에게 신속·간편·상시·저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지난해 말 서울시가 발표한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 ‘안심통장’은 최대 1,000만 원까지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고 승인된 한도 내에서 필요할 때 자유롭게 자금을 인출하고 상환할 수 있다. 시는 이를 통해 사용한 기간만큼만 이자를 부담한다는 점도 안심통장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 대출금리는 시중은행 카드론 평균 금리인 14.0%보다 낮은 4.84%(C D금리+2.0%) 수준이다. 또한,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자동 심사를 도입해 복잡한 서류제출이나 대면 없이 영업일 기준 1일 이내로 대출 승인이 완료된다.
- ‘안심통장’은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업력 1년 초과 ▲최근 3개월 매출 합계 200만 원 이상 또는 1년 신고매출액이 1,000만 원 이상 ▲대표자 NICE 개인신용평점 600점 이상인 개인사업자면 신청할 수 있다. ‘안심통장’의 신청 자격, 지원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www.seoulshinbo.co.kr)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신청은 3월 27일(목)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서울신용보증재단(1577-6119) 또는 카카오뱅크(1599-3333) 모바일 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 시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는 미리 촬영해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 실사를 대체하기 위해 신청 과정에서 대표자가 직접 사업장 외부·내부 사진을 촬영해 GPS 위치정보 확인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사업장 주소지에서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서울시는 최초 출시하는 ‘안심통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오는 17일(월) 오후 2시 30분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민간협력사인 카카오뱅크(대표 윤호영), 보증기관인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과 함께 ‘서울시 안심통장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서울시는 안심통장 홍보 등 행정 전반을 지원하고 카카오뱅크는 전용 상품 마련 등 자금 지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은 특별보증 등을 통해 상호 협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서울경제의 실핏줄이자 지역 골목상권의 든든한 버팀목인 자영업자분들께 신속하고 간편한 금융 지원을 제공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웃어야 서울이 웃는다’는 신념으로 장사하기 좋은 서울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